

성명	최현서	수험기간	2022.03~2025.07.
학교	성균관대학교	전공	신소재공학부
키워드	기득 상표고득점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운 좋게 62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최현서라고 합니다. 제 합격수기가 수험생분들께 최대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내년에 꼭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차 공부

민법	산업재산권법	자연과학개론
92.5점	85점	55점

-민법- <점수: 92.5점>

【강의 및 교재】

김동진 강사님 민법공방, 민법공방연습, 타학원 강사님 10개년 기출문제집

김동진 강사님 기본강의, 최판특강, 핵심급소강의

【기본서 활용 방법】

저는 2023년 60회 변리사 1차 시험에서 합격선 점수보다 0.8점 낮은 점수로 떨어졌었습니다. 2022년 3월에 기본강의는 이미 수강한 상태라 따로 기본강의를 듣지는 않고 3월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바로 암기하는 것보다는 여러 번 봐서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었기에 기본서 회독을 3월부터 시험을 치기 직전인 2월까지 꾸준히 병행했습니다. 김동진 강사님이 밑줄 쳐주시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회독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모든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더라도 정해진 분량만큼을 계속 회독하였습니다. 회독 초반에는 김동진 강사님의 필기 노트와 함께 회독을 진행했고 회독 수가 쌓일수록 필기 노트는 보지 않고 기본서 위주의 회독을 진행했습니다.

【문제집 활용 방법】

1차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수험생분도 아시다시피 **기출문제를 회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월부터 기본서 회독을 하다가 김동진 강사님의 민법공방연습 책이 나오자마자 구입하여 기출문제 회독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볼 문제 개수를 정해 먼저 풀어보고 틀린 것을 체크해 두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회독할 때마다 펜 색이나 체크 모양을 다르게 하여 표시를 해둔 터라 제가 어떤 부분에서 계속 틀리는지 확인하기 쉽게 했습니다. 1월 말쯤부터는 **시험 직전에 볼 수 있을 만한 콤팩트한 오답 노트**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김동진 강사님 민법공방연습에 부록으로 있는 문제만 모인 책을 활용해 끝까지 계속 헛갈리거나 틀리는 문제에만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문제집 회독 속도를 점점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법공방연습은 오지선다형이 아닌 ox 형태의 책이었기에 실제 시험과 같이 오지선다형 문제도 보기 위해 타학원 강사님 기출문제집 회독도 민법공방연습과 같은 방식으로 병행했습니다.

-산업재산권법- <점수: 85점>

【강의 및 교재】

특허 : 타학원 강사님 기본강의, 기본서, 기출문제집
상표 : 타학원 강사님 기본강의, 기본서, 요약서, 기출문제집
디자인보호법 : 김웅 변리사님 기본강의, 기본서, 기출문제집

【특허법】

<기본서 활용 방법>

이미 2023년도에 기본강의를 미리 들은 터라 2024년도에는 따로 기본강의를 듣지 않고 기본서 회독을 시작했습니다. 개정된 부분을 추록으로 옮겨붙이면 책이 정리가 잘 안되는 느낌을 받았기에 기본서를 새로 구입하여 이전에 해둔 필기들을 모두 옮기고 회독을 진행했습니다.

<기출문제집 활용 방법>

기출문제집도 새로 구매하여 활용했습니다. 특허도 민법과 마찬가지로 선지별로 내가 헛갈리는 것과 틀린 선지를 모두 체크해 나가는 방식으로 회독을 진행했습니다. 기출문제 이외에 다른 강사님들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들은 따로 보지 않았습니다. 특허도 1월 말부터 시험 치기 전에 보고 들어갈 만한 컴팩트한 **오답 노트**를 만들어 두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조문 암기>

1차 시험에서는 조문의 주체나 어미, 법정기간 등과 같이 2차 시험에서보다 훨씬 더 세밀한 조문 암기를 요구하다 보니 매일 분량을 정해서 **조문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조문 회독도 진행했습니다. 저는 펜으로 쓰면서 외우는 것을 선호했기에 빈칸이 뚫린 조문집 파일을 구매하여 직접 채워보는 방식으로 조문 암기를 진행했습니다.

【상표법】

<기본서 활용 방법>

타학원 강사님의 요약서를 기본서로 삼아 꾸준히 회독을 진행했습니다. 교재 양 끝에 있는 ox 문제도 항상 같이 풀어보면서 회독을 진행하고 여러 번 틀리는 문제는 따로 체크를 해두어 계속 틀리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기출문제집 활용 방법>

기출문제 외에 다른 문제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기출문제 회독을 진행할 때는 단순히 답을 찾는 데에서 끝내지 않고 모든 선지를 다 체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옳은 것을 고르는 지문에서는 각 선지가 **왜 틀렸는지 모두 체크**하는 방식으로 회독을 진행해서 모든 기출문제 선지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회독했습니다.

<조문 암기>

상표도 특허와 마찬가지로 매일 분량을 정해 조문 빈칸을 채우는 방식으로 조문 암기를 진행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기본서 활용 방법>

김웅 변리사님 기본서를 회독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특허와 겹치는 부분이 꽤 많았기에 기본서를 회독할 때 **특허와의 차이**를 항상 생각하면서 기본서 회독을 진행했습니다.

<기출문제집 활용 방법>

김웅 변리사님 기출문제집 회독을 했습니다. 김웅 변리사님 기출문제집 뒷부분에 변리사님이 직접 만드신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들도 같이 보면서 틀린 선지와 헛갈린 선지를 체크해두었습니다.

<조문 암기>

디자인보호법도 다른 산재법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조문 빈칸 채우는 방식**을 통해 조문 암기를 진행했습니다.

-자연과학개론- <점수: 55점>

【강의 및 교재】

- 물리 : 타학원 강사님 기본강의, 기본서, 기출문제집
- 화학 : 타학원 강사님 기본강의, 객관식강의, 기본서, 문제집
- 생물 : 타학원 강사님 기본강의, 기본서, 문제집
- 지구과학 : 박준희 강사님 기본강의, High-end 교재

【물리】

물리는 문제를 꾸준히 풀어보는 게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에 기본강의를 이미 들어놓은 터라 따로 강의를 듣지는 않았고 **기출문제를 계속 푸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연말에 강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 문제를 올려주셨는데 그 문제들도 모두 풀어보면서 공부했습니다.

【화학】

화학도 물리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실력을 높이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학은 기본강의 외에도 객관식 문제 강의까지 수강했습니다. 화학도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객관식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많은 문제를 접하면서 오답률을 줄여나가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생물】

생물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공부를 한 적이 없었기에 가장 익숙하지 않은 과목이었습니다. 기본강의를 다 듣고 바로 문제 풀이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문제를 풀 땐 틀리는 문제가 더 많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생물도 선지별로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모두 체크해나가면서 공부했습니다.

【지구과학】

지구과학도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공부한 적이 없었으나 생물보다는 범위가 작아 공부하기가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박준희 강사님 기본강의를 듣고 기본서에 있는 모든 문제를 계속 풀었습니다. 기출문제까지 모두 수록되어 있었기에 다른 교재는 구매하지 않고 박준희 강사님 책으로 지구과학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기타-

【시간 관리】

민법과 산재법의 경우 70분 이내에 40문제를 풀어야 하다 보니 **1문제당 1분 30초** 이내에 풀어서 되도록 60분 이내에 모든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남은 10분간은 OMR카드 작성 및 답안지 체크하는 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체력 관리】

따로 운동을 하진 않았고 독서실을 집에서 도보로 2~30분 정도 되는 곳으로 잡아서 매일 걷는 정도로만 체력 관리를 했습니다. 공부하다가 많이 졸리면 10~20분 정도 낮잠을 자서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 풀이 방법】

제가 생각하는 1차 합격의 핵심은 **기출문제 회독**입니다. 따라서 저는 최대한 빨리 기출문제를 풀어 기출문제의 지문들에 익숙해지려고 했습니다. 문제집 회독할때마다 틀린 문제와 헷갈린 문제를 따로 체크해두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회독하다 보면 제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곧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시험장에 가져갈 오답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1차 문제의 경우 문제로 나오는 포인트들이 정해져 있는 편이라 그 부분들을 위주로 회독하고 체크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공부 비율 및 시간】

민법과 산재법의 경우 매일 조금씩 공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자연과학의 경우 물리 화학과 생물 지구과학을 하루씩 나누어 공부했습니다. **민법 : 산재 : 자과의 비율을 1:1:1**의 비율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공부할 때 따로 열풍타나 스톱워치로 공부 시간을 측정하지는 않았고 매일 8시부터 11시까지 독서실에 있도록 했습니다.

2차 공부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선택과목
51.66점	54점	65.66점	57점

-민사소송법- <점수: 51.66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이창한 강사님 2024 기본강의, 2024 사례강의, 2024 기초 GS, 2024 실전 GS A형, B형, 2025 심화강의, 2025 실전GS A형, B형

▪ 교재

이창한 강사님 통합 민사소송법, 사례 민사소송법, 핸드북 기출문제집

【수강한 GS】 (스터디 포함)

24년 1~2월	24년 3월	24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x	x (기본강의 실강 수강)	x (사례강의 실강 수강)	기초 GS	실전 GS B형(실강) 실전 GS A형 (온라인)

25년 1~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x	2024년 실전 GS A형(혼자서)	실전 GS A형	2024년 기초GS, 실전 GS B형(혼자서)	실전 GS B형

【시기별 공부】

▪ 동차 기간

민사소송법은 2차에서 처음 접하다 보니 일단 강의를 듣고 복습하는 데에 거의 모든 시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면 강사님에게 질문하는 루트도 제한적이고 진도가 밀릴까 봐 끝까지 현강을 들었습니다. 동차 기간 내내 민사소송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시험에 나오면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만 급급하게 외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6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생각했고 그래도 계속 회독하다 보니 시험을 치기 바로 전인 7월 중순쯤에는 어느 정도 큰 틀은 잡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차 기간과 기득 기간에 전체적인 공부 방법은 거의 그대로라 각 교재를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는 아래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득 기간

동차 시험을 치고 난 후 합격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에 한 달 정도 쉰 후 9월쯤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동차 시험을 치고 난 후 민사소송법 실력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초반에는 민사소송법을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9월에는 아직 기본서 신판이 나오기 이전이라 동차 때 썼던 기본서 회독을 시작했습니다. GS 수업 이외에 비시즌 기간에는 따로 답안지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각 강의와 교재를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는 아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독 방법】

<기본서 활용 방법>

기본강의 시즌(동차 3월) : 기본강의 시즌에는 따로 예습은 하지 못했고 수업을 듣고 오늘 수업한 부분 복습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복습할 때는 진도 나간 부분 기본서와 판서 노트를 같이 회독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법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차 4~7월 : 매일 조금씩 기본서 회독을 진행했습니다. 기본서를 읽다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관련된 판서 노트 부분 발췌독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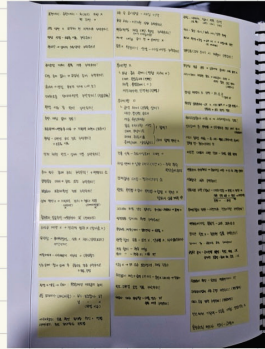
기득 기간 : 기득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매일 분량을 정해 기본서 회독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처음 9월에는 한 달 주기로 시작하여 주기를 점점 줄여 시험 직전에는 2~3일 주기로 1회독을 진행했습니다. 심화강의도 진도에 맞춰 수강하고 복습하며 민사소송법에 대한 전체적인 틀도 갖출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기본서 회독을 진행할 때는 항상 큰 틀에서 내가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지(주소 설정)**를 상기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통합 민사소송법 교재의 앞부분에 있는 **차례**를 활용해서 주소 설정을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회독하면서 **서로 관련되거나 주제가 겹치는 부분**을 표시해 두고 **비교하며 회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예시 : 포스트잇에 “상계 관련 논점들 - H36, P37, 53, 56-1, U13, 58-1, 62”라고 써서 기본서 맨 앞에 붙여두었습니다.)

<사례집 활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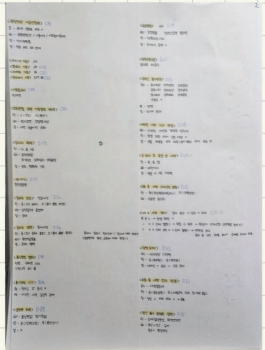
사례강의 시즌(동차 4월) : 기본강의를 들은 이후였으나 민사소송법에 대해 아직 감을 전혀 잡지 못한 상태라 예습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사례강의도 현강을 수강했기에 현강을 듣고 오늘 진도 나간 부분들을 복습하는 방식으로 활용했습니다. 수업을 듣고 나서 복습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복습할 때 목차를 제대로 잡지 못했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분이 계신다면 어떤 목차를 잡아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꾸준히 조금씩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7월에는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겁니다.

동차 4~7월 : 하루에 분량을 정해 10~20문제씩 **목차 잡기 연습**을 했습니다. 목차를 잡을 때는 목차뿐만 아니라 각 학설과 판례의 키워드까지 현출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하나 다 쓰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혼자 머릿속으로 되뇌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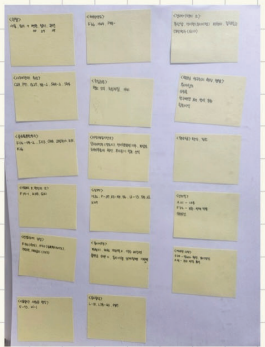
기득 기간 : 사례집은 10월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도 목차를 잡아보면서 결론이 틀린 문제, 논점을 맞추지 못한 문제, 특정 목차나 내용을 누락한 문제를 각각 다르게 표시해 두어 제가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주 누락하는 내용은 포스트잇에 적어 기본서 맨 앞에 붙여두고 시험을 치기 전뿐만 아니라 GS 쓰기 전에도 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오답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시험 전에 꼭 보고 들어갈 문제를 10개 이내로** 추려 시험 직전에 볼 수 있도록 양을 줄여나갔습니다.



통합 첫페이지에 자주 누락하는 논점등 위주로 오답노트를 만들어 붙여두었습니다.



문자만 적힌 파일을 만들어서 자투리시간에 양기하고 관련된 내용은 상기시키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서로 관련된 논점등을 묶어서 비교하면서 봐주 있도록 구별을 해두었습니다.

<핸드북 활용 방법>

동차 기간에는 시간이 없어서 핸드북은 보지 못했고 기득 시즌에만 볼 수 있었습니다. 핸드북 또한 사례집과 비슷하게 하루에 분량을 정해서 **목차 잡기 연습**을 하는 식으로 회독했습니다. 핸드북도 사례집과 마찬가지로 결론이 틀린 문제, 논점을 못 맞춘 문제, 특정 목차나 내용을 누락한 문제를 모두 구별하여 체크해두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쯤인 6월 중순~말부터는 마지막으로 목차 잡기를 해보면서 **시험 바로 전까지 볼 문제를 10개 이내로** 추려 표시해 둔 후 비슷한 논점이 시험문제로 나오더라도 시험에서는 최대한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GS 활용 방법>

제가 동차와 기득 기간 모두 윌비스 종합반이었기에 모든 GS 강의를 실강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GS는 매주 주말에 들은 이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습**했습니다. GS 복습은 다시 목차와 키워드, 결론을 써보고 누락한 논점들을 기본서에 체크하고 GS에 나온 논점들을 모두 기본서에 표시해 두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6월부터는 한경훈 변리사님이 알려주시는 **GS 단권화**를 통해 시험 직전까지 계속 볼 필요가 있는 문제들 2~3개 정도로 추려 나가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암기 방법】

비시즌 (9월~1월) : 저는 곧바로 암기하는 것보다는 **여러 번 봐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방법**의 암기를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비시즌일 때에는 암기에 곧바로 집중하기보다는 판례와 학설, 검토의 논리, 근거의 키워드 한두 개씩을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방식의 경우 암기의 부담이 비교적 덜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계속 이 방법을 고수할 경우 상대평가인 이 시험에서 합격할 만한 답안지를 쓰기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다른 과목에 비해 판례의 표현을 그대로 답안지에 현출하는 것이 더 어려웠기에 **2월부터는 두문자**를 통해 판례 현출도를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GS 시즌(2월~7월) : 2월에는 따로 민사소송법 GS를 들지는 않아서 2월에는 일단 민사소송법 두문자를 따고 외우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통합에 적합한 두문자뿐만 아니라 타학원 강사님 교재에 있는 두문자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두문자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두문자에 너무 몰두할 경우 시험에서 두문자만이 기억나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 **키워드를 항상 떠올리면서 두문자를 외우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2월에는 직접 두문자만 적힌 파일을 만들어서 자투리 시간에 두문자를 외우려고 노력했고 GS를 들으면서 빠진 내용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암기를 진행했습니다.

-특허법- <점수: 54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2024 박형준 기초GS+, 실전GS B형, 2025 박형준 기본강의, 판례강의, 사례강의, 도약GS, 실전 GS A형, B형, 최신판례 강의

▪ 교재

준특허법 기본서, 사례집, 판례집

【수강한 GS】

24년 1~2월	24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x	기초 GS+	기초 GS+	실전 GS B형(토요일)	실전 GS B형(토요일)

25년 1~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도약GS	실전 GS A형	최근 8개년 기출 풀 답안 쓰기(혼자서)	타학원 변리사님 실전 GS	실전 GS B형

【시기별 공부】

▪ 동차 기간

1차시험을 친 이후 다음 주 주말부터 곧바로 박형준 변리사님 기초 GS+를 수강했습니다. 처음 기초 GS를 수강하는 동안에는 대부분 책을 보고 답안지를 썼습니다. 다만 지금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GS 등수가 낮게 나오더라도 등수를 신경을 쓰지 않고 **최대한 빨리 책을 보지 않고** 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차 공부가 처음이었기에 박형준 변리사님의 충고를 외우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실전 GS에 들어간 이후에는 책을 보지 않고 썼고 이로 인해 제가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더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 기득 기간

9월에는 90% 이상 민사소송법에 투자하느라 특허는 박형준 변리사님 강의를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본가가 지방이라 비시즌일 때에는 본가에서 인강으로 박형준 변리사님의 기본강의, 판례강의, 사례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회독과는 별개로 전날 수강한 부분을 다음날 복습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2차 비시즌 기간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특허법의 전반적인 이해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박형준 변리사님 **기본서의 basic concepts와 판례집의 각 판례 설명 부분**을 통해 특허법과 각 판례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교재별로 공부했던 방식은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독 방법】

<기본서 활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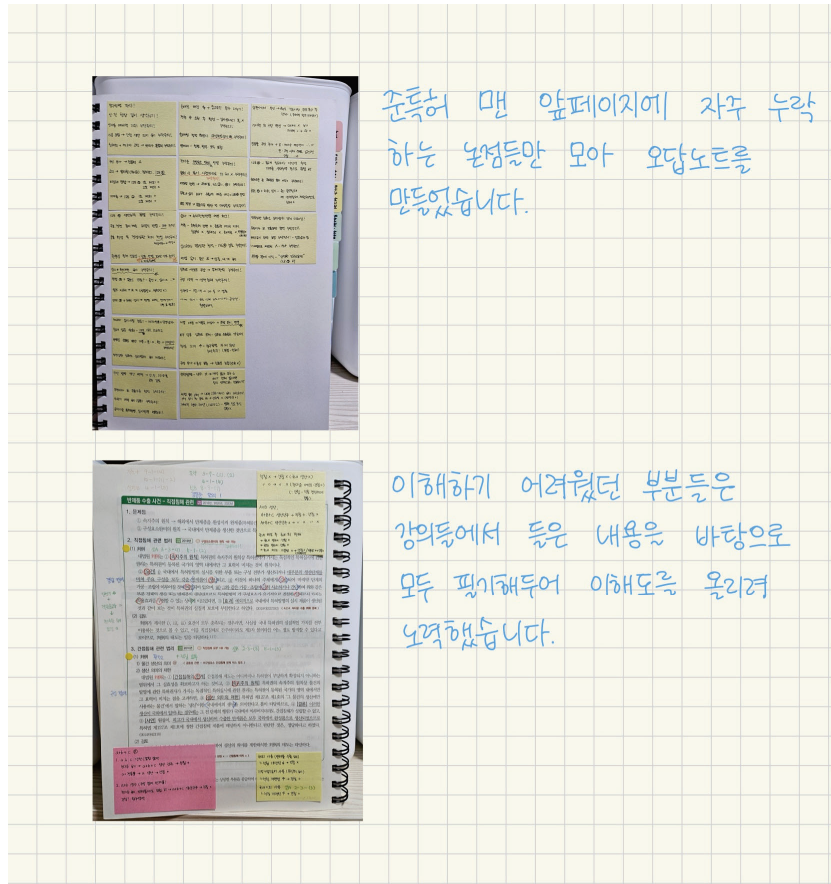
비시즌 기간에는 준특허법 PLUS를 주로 회독했습니다. basic concepts 부분을 활용해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해가 어려웠던 개념들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practical contents 부분을 통해 기본적인 목차들은 외워서 실제 답안지를 쓸 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달을 기준으로 회독 횟수를 정해 주 단위 일 단위로 나눠 하루에 회독할 분량을 정하고 꾸준히 회독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제게 기본서 회독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기에 **기득 기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기본서 회독**을 진행했습니다.

<판례집 활용 방법>

판례강의 시즌 동안 강의를 수강하며 각 판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제가 된 논점들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박형준 변리사님이 각 판례의 사실관계와 법리, 사안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 수업을 통해 특허법 중요 판례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특히 각 판례의 맨 앞에 있는 사안에 대한 설명 부분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판례강의 시즌 이후 혼자 회독할 때는 일단 법리와 사안 포섭의 논리 흐름을 알고 제가 이해한 논리를 답안지에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공부하고 있는 판례가 그대로 시험문제로 나온다면 **어떤 목차**를 쓸 건지, **사안 포섭은 어느 정도 분량으로 어떤 키워드를 꼭 포함해서 쓸지**를 고민하며 회독했습니다. 회독이 쌓일수록 목차와 사안 포섭 내용을 좀 더 수정해 가며 한눈에 보이기 쉬운 목차, 더욱 직관적인 목차를 쓸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판례집 회독을 할 때 판례집의 별표 개수와 기출연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약 조절**을 했습니다.

<사례집 활용 방법>

사례강의 시즌 동안에는 진도에 맞춰서 **목차 잡기 연습**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2월 도약 GS 수강하기 전까지 사례집의 모든 문제에 대해 목차 잡기 연습을 했습니다. 목차 잡기를 할 때에는 결론이 틀린 문제, 논점을 제대로 찾지 못한 문제, 누락한 조치 등등을 모두 사례집에 체크해 둔 후 **기본서에도 포스트잇**으로 붙여두었습니다. 4월에 특허 GS 수업이 없어서 혼자 **최근 8개년 치의 기출문제 풀답안** 쓰기 연습을 했습니다. 4월쯤 기출문제를 통해 제가 공부해야 할 범위에 대한 강약 조절이 될 수 있었습니다.



<GS 활용 방법>

저는 GS를 많이 듣는 것을 선호하지 않고, GS를 많이 들었을 때 제가 들은 GS를 모두 소화할 자신도 없었기에 박형준 변리사님 GS 외에 타학원의 소형 강의를 한번 들었습니다. 소형 강의는 변리사님의 직접 채점이라는 장점이 있어서 선택했습니다. GS는 모든 과목에 공통적으로 최대한 빨리 복습을 끝내고 **GS 단권화**를 통해 정리를 했습니다. 박형준 변리사님의 **도약 GS**는 기본적인 A급, B급 논점들에 대해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GS이기에 2월에 듣는 외에도 변리사님 GS가 없는 달에 한 번 더 목차 잡기를 해보는 방식으로 다른 실전 GS에 비해 한두 번 정도 더 공부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암기 방법]

동차 시기 : 1순위로 총알, 2순위로 기초 GS+의 답안을 최대한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따로 스터디도 하지 않았기에 일단 기초 GS+ 수강 시작과 함께 **총알**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한두 개와 논리, 이후로는 키워드를 하나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암기했습니다. 초반에는 두문자를 거의 활용하지 않았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판례의 문장 구조나 표현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두문자를 활용하여 암기를 진행했습니다.

기득 시기 : 비시즌에는 암기보다는 이해를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동차 시기에는 시간의 압박에 쫓기다 보니 이해보다는 암기 위주로 공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시즌 동안에 이해를 최대한으로 하여 암기량을 줄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박형준 변리사님이 수업 시간에 말씀해 주신 대로 **2월에 도약 GS를 수강하면서 암기 스피트**를 올려 적어도 3월에 실전 GS 들어갈 때는 동차 때의 실력은 만들어 놓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암기할 때는 판례의 키워드나 문장구조를 그대로 답안지에 현출하기 위해 **두문자**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상표법- <점수: 65.66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2024 한경훈 기초GS+, 실전 GS B형, 2025 한경훈 기본강의, 판례강의, 사례강의, 쟁점강의, 도약GS, 실전 GS A형 , 실전 GS B형, 최신판례 강의, 타학원 변리사님 실전 GS A형, B2형

▪ 교재

데생 상표법 점, 선, 면, 피날레

【수강한 GS】

24년 1~2월	24년 3월	24년 4월	24년 5월	24년 6월
x	기초 GS+	기초 GS+	실전 GS B형(일요일)	실전 GS B형(일요일)
25년 1~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도약 GS	실전 GS A형	타학원 변리사님 실전 GS A형(온라인)	실전 GS B형	타학원 변리사님 실전 GS B2형(온라인)

【시기별 공부】

▪ 동차 기간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바로 다음 주 주말부터 기초 GS+를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표의 경우에도 기초 GS 기간에는 책을 보고 답안지를 썼으나 다른 수험생분들께 굳이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빨리 책을 보지 않고 쓰는 것을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표의 경우 특허와 민사소송법에 비해 빈출 논점이 정해져 있고 암기량도 비교적 적은 편이라 다른 과목에 비해 강약 조절하는 데에 어려움이 조금 덜했습니다.

▪ 기득 기간

한경훈 변리사님 기본강의가 개강하기 전에는 상표 공부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기본강의, 판례강의, 사례강의, 쟁점강의 시즌에 맞추어 강의 수강을 하고 복습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상표도 다른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비시즌 기간에 **이해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암기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교재별 활용 방식은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독 방법】

<기본서 활용 방법>

저는 기본서 회독은 합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시험 직전까지 꾸준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독 주기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게 하루에 회독할 분량을 정하여 조금씩이라도 매일 회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본서를 회독할 때는 처음에는 상표의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고 큰 숲을 먼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기본서 회독 시에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읽고 있는지 **주소 설정**을 제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꾸준한 회독을 통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틀이 잡힌 이후에는 기본서에 표시된 **별표 2개짜리 라벨부터 순서대로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상표의 경우 빈출 논점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서(33조, 34조, 취소심판 등) 자주 나오는 논점들의 경우에는 관련된 판례의 라벨과 요건들 및 내용까지 훨씬 더 세밀하게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판례집 활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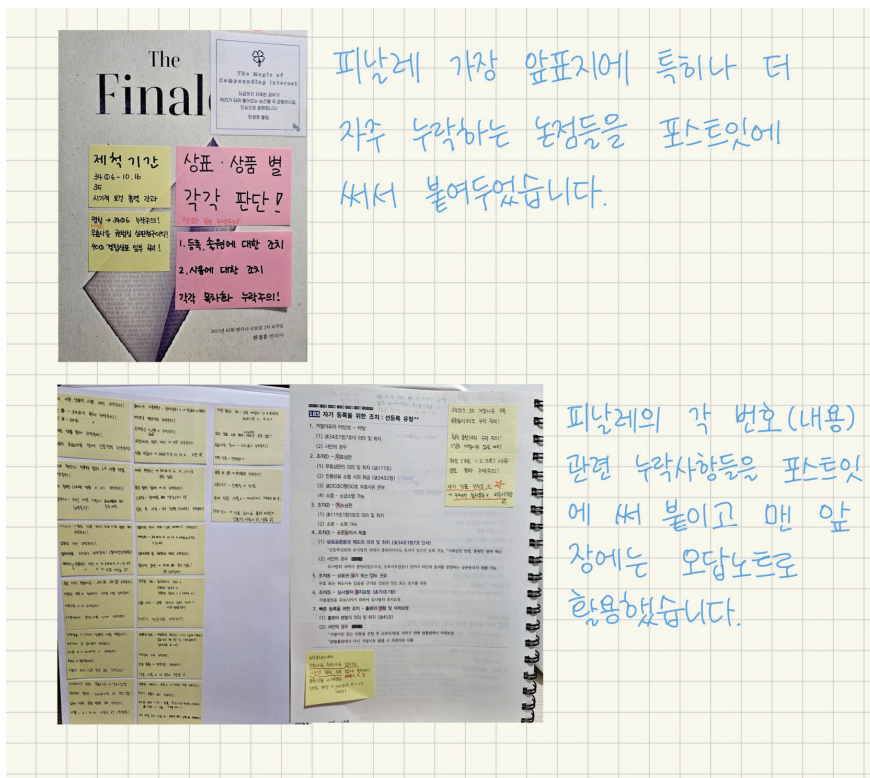
한경훈 변리사님 판례강의는 판례를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서 설명해 주시는 편이라 판례강의를 수강한 이후로 각 판례에 대한 이해도와 판례의 태도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판례강의 시즌 이후에는 판례집을 회독하면서 판례 키워드와 사안 포섭 키워드를 체크하는 정도에서 끝내지 않고 만약 이 판례가 그대로 시험문제로 출제된다면 어떤 식으로 **목차**를 잡을 건지, **사안 포섭 소목차**는 어떤 식으로 잡을 건지, **사안 포섭에 꼭 들어가야 할 키워드**까지 써보는 식으로 회독을 진행했습니다. 회독이 쌓일수록 더 상세하고 한눈에 보기 쉬운 목차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상표 판례의 경우에도 판시된 연도와 기출 연도, 별표 개수를 통해 **강약 조절**을 했습니다. 하급심 판례들은 직접 원문을 읽어보지는 않았고 선의 쟁점 포인트 부분을 통해 하급심에서만 다뤄진 논점과 논리 흐름 및 결론 정도를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례집 활용 방법>

사례강의 시즌에 맞춰서 기출문제 **목차 잡기 연습**을 진행했었고 그 이후로는 사례집은 따로 보지 못했습니다. 한경훈 변리사님 5월 실전 GS B형을 시작하기 전에 1~2주 정도 시간을 내어 빠르게 목차 잡기를 진행했습니다. 사례집 목차 잡기를 하면서 누락한 논점, 누락한 조치, 결론 틀린 부분들은 모두 **피날레에 표시**를 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날레 활용 방법>

피날레는 **상표 단권화 교재**로 활용했습니다. 일단 피날레 가장 앞 페이지에 제가 자주 누락하는 논점들(조치 틀, 제척기간 등)을 포스트잇에 써서 붙여두었습니다. 피날레에는 GS에서 나온 논점들도 모두 체크해 두었고 빈출 논점(33, 34조, 취소 심판)과 다논점 문제, 논점 추출 문제들의 **목차 템플릿**을 만들어서 모두 붙여두었습니다. 제가 활용한 판례 두문자들까지 모두 적어서 피날레를 시험 직전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GS 활용 방법>

저는 주말에 GS를 듣고 **최대한 빨리 복습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GS 2개를 듣는 달에는 그날 저녁에 복습을 끝내고, 3개를 듣는 달에는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무조건 복습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GS 복습은 다시 풀었던 문제들의 목차를 잡아보고 누락한 부분을 체크하고 관련된 부분 기본서를 다시 읽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암기 방법】

초반에는 일단 이해를 통한 암기를 선호하는 사람인지라 두문자보다는 **키워드 중심**의 암기를 선호했으나 판례의 키워드와 표현을 살리기 위해 **두문자를 활용**했습니다. 특히나 상표의 경우 34조 1항 13호 부정한 목적 판단기준과 같이 고려 요소들이 나열된 판례의 경우 두문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암기했습니다. 두문자는 대부분 제가 직접 만들지는 않고 한경훈 변리사님 암기집과 타학원 변리사님의 암기자료를 활용하여 암기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점수: 57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2024 김웅 통합기초GS, 실전 GS, 2025 김웅 통합기초GS, 실전 GS
- 교재
WK디자인보호법 통합서브

【수강한 GS】

24년 1~2월	24년 3월	24년 4월	24년 5월	24년 6월
x	x	통합 기초 GS	x	실전 GS
25년 1~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x	x	통합 기초 GS	x	실전 GS

【시기별 공부】

- 등차 기간
초반에 암기량이 적다는 저작권법을 선택할지 이미 기본적인 개념이 있는 디자인보호법을 선택할지 고민했으나 새로운 강의를 듣고 개념에 익숙해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디자인보호법을 선택했습니다. 3월에는 따로 디자인보호법 공부를 하지는 못했고 **4월부터 매일 최소 30분씩**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기득 기간
3월 말부터 최소 30분씩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통합 기초 GS는 기득을 위한 강의는 아니었으나 강제적으로 디자인보호법 공부를 하기 위해 기초 GS까지 수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다룬 GS이었기에 기득 시점에 듣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회독 방법】

<기본서 활용 방법>

3월 말부터 기본서 회독을 조금씩이라도 진행했습니다. 타학원 변리사님의 암기자료를 활용해 기본서에 **두문자 표시** 및 강약 조절을 했습니다. 변리사님이 중요하다고 하신 시행규칙과 심사 기준 일부까지는 두문자를 통해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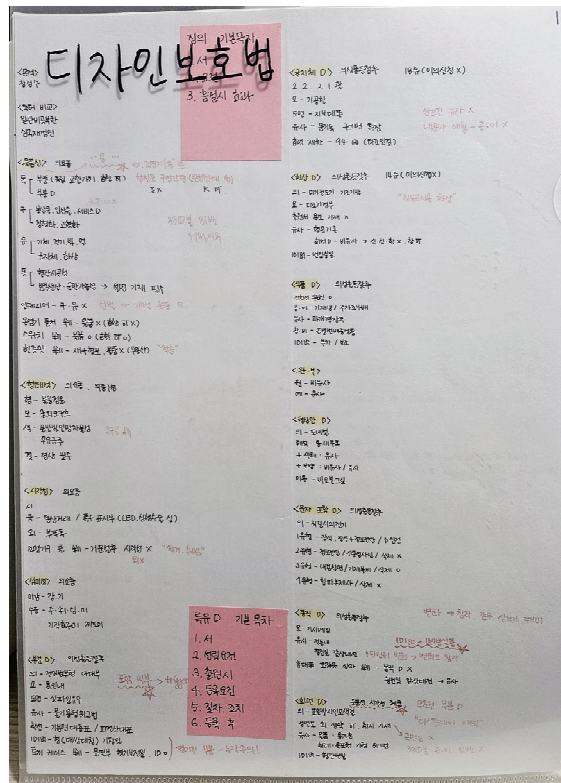
<GS 활용 방법>

디자인보호법 공부 시간을 최소 30분 이상 확보하기 위해 4월에 기초 GS를, 답안지 쓰는 감을 최대한 익히기 위해 5월 이 아닌 6월에 실전 GS를 수강했습니다. GS 시즌에 복습한 이후 따로 6월 중순까지 GS 자료를 보지는 못했고 6월 중순부터 GS 단권화를 위해 GS 목차 잡기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암기 방법】

김웅 변리사님의 기본서를 그대로 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타학원 변리사님 암기자료를 중심으로 두문자를 따서 암기했습니다. 기본서의 각 목차별 맨 앞 페이지에 있는 목차들은 반드시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웅 변리사님 기본서에 두문자를 적어두고 암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2차 시험에서는 조문이 주어지다 보니 조문 위치를 외워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디자인 보호법도 두문자만 모은 파일을 만들어 **오답 노트 겸 암기집**으로 활용했습니다.



-답안지-

【실제 시험에서의 답안】

답안 분량		한 줄 내 글자수	목차 간 엔터	글자 크기
민사소송법	22페이지	약 21~22자	1.목차 사이에 엔터O	세로 폭의 2/3 정도
특허법	24페이지			
상표법	24페이지			
선택과목	20페이지			

【글씨 노하우】

글씨를 잘 쓰는 편이었기에 글씨에 대한 고민은 깊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필속이 조금 느린 편이라 문제를 좀 더 빠르게 읽고 답안지 쓰는 시간을 좀 늘리는 방식으로 답안지를 썼습니다.

【사용한 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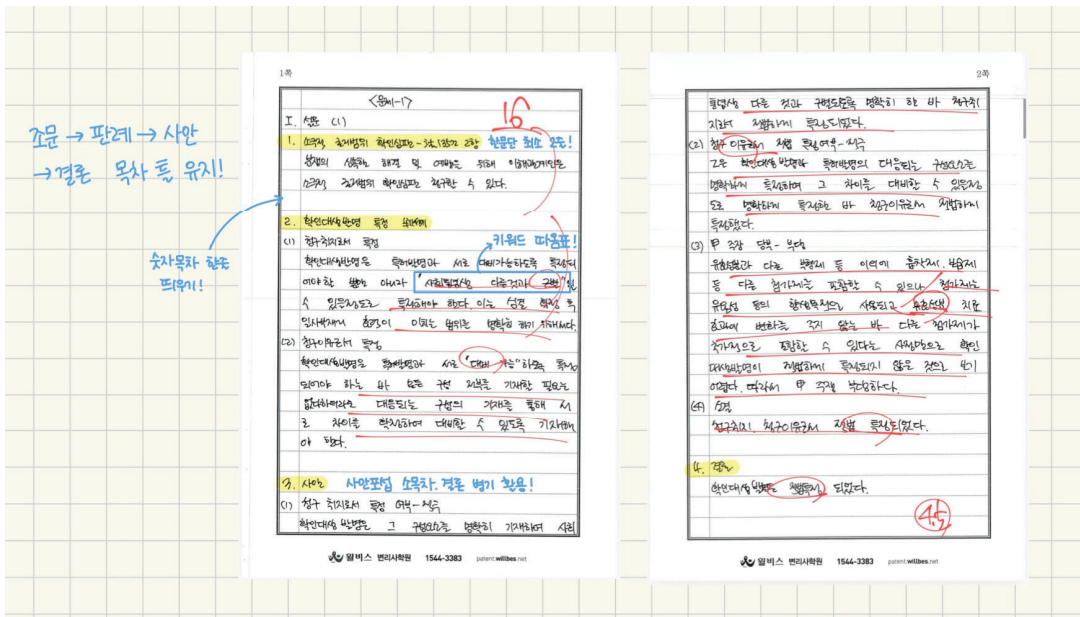
제트스트림 펜대 + 에너젤 인프리 0.7 + 애벌레 그림

필기할 때 볼펜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연필로는 색 구분이 안 돼서 저는 색이 있는 샤프를 썼습니다. 색은 다양하게 있고 샤프라 지우개로 지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색 있는 샤프로 필기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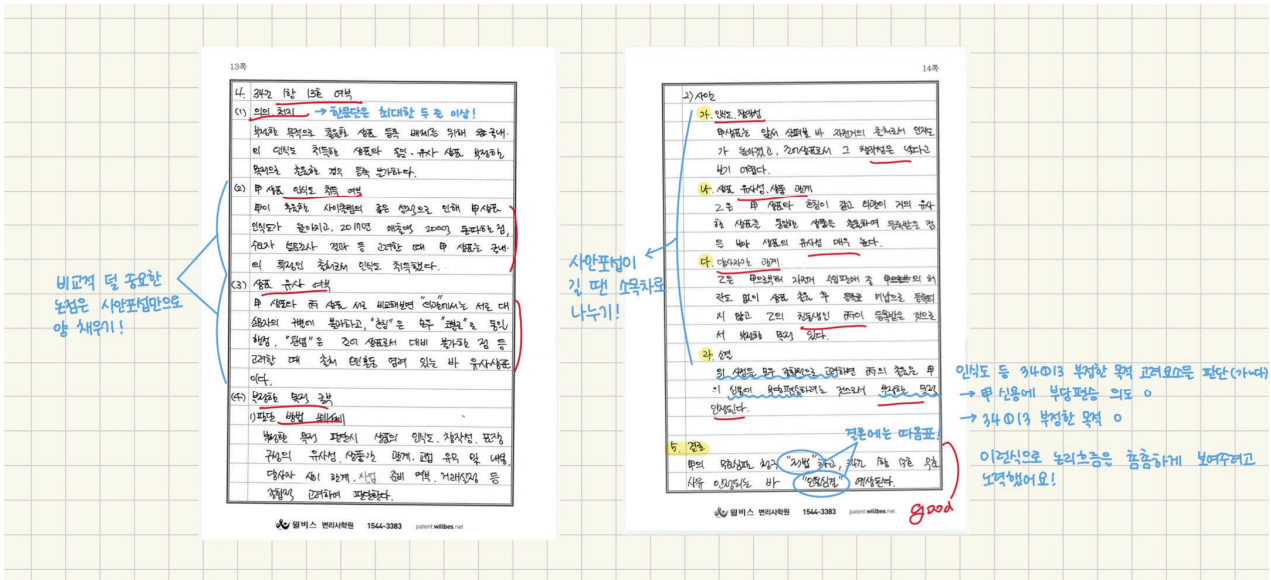
【답안작성 방법】

민사소송법 : 배점이 매우 작은 것(3~4점)이 아닌 한 반드시 **논점정리** 목차를 썼습니다. 논점정리 목차에는 문제의 기본적인 논점의 의의 및 취지와 아래에 쓸 숫자 목차 내용들을 위주로 기재했습니다. 민사소송법의 경우 다른 과목에 비해 답안지에 현출해야 할 논점들의 틀이 정해져 있고 그 틀을 변형해서 써야 하는 문제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례 민사소송법 및 통합 민사소송법 교재, 이창한 강사님 GS 답안의 목차를 거의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주로 **‘문제점->학설->판례->검토->사안’**의 목차들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특허법 : 특허법의 경우 기본서의 practical contents 기본 목차들을 숙지하되 문제가 나오는 상황에 따라 목차를 변형해서 활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문제에서 활용될 **‘조문->판례->사안->결론’** 네 가지 목차들을 최대한 유지했습니다. 특허에서도 박형준 변리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문제를 푼 티’**를 내기 위해 **사안 포섭을 꼼꼼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안 포섭을 길게 할 경우 원문자보다는 소목차를 활용했습니다. 또한 **문제에서 물어본 바를 그대로 목차에 활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상표법 : 상표법에서도 기본적으로 '조문->판례->사안->결론' 네 가지 목차들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상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안 포섭**이라고 생각하여 최소한 판례 길이와 1:1은 되도록, 대부분 2:1은 되도록 썼습니다. 시간이 넉넉할 경우 목차 옆에 소극, 적극과 같이 결론을 적고 **따옴표**를 활용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사안 포섭을 할 때 예를 들어 상표의 유사 여부를 물어봤으면 양 상표의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이 유사하고, 관념이 유사하여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양 상표의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이 유사하고,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 혼동 염려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다"라는 방식으로 사안 포섭의 **논리 흐름을 최대한 촘촘하게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경훈 변리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답안지가 비어보이지 않기** 위해 처음과 끝을 답안지의 끝에 맞추고 한 문단에 최소한 두 줄은 되도록 썼습니다.



【문제 풀이 전략】

초안지 관련 : 저는 문제를 풀 때 초안지를 작성하지 않고 바로 답안지 작성을 들어가서 답안지 작성 시간을 좀 더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초안지를 쓰지 않다 보니 **문제에 표시를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문제에 표시하는 방식은 한경훈 변리사님이 GS 초반에 알려주시는 방법을 거의 그대로 활용했고 문제를 풀 때 연필 외에 다른 형광펜 등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각 설문을 풀 때에는 **주논점 키워드**를 써두고 **분량을 대략적으로 정한 뒤** 곧바로 답안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시간 관리 : GS를 풀 때도 실제 시험을 칠 때도 **36-24-36-24** 시간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글을 읽는 속도가 좀 빠른 편이었기에 문제를 읽고 논점을 체크하고 답안지 작성에 들어가는 데까지 대부분 2~3분 이내로 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려운 문제나 정답 문제가 나올 때도 최대 5분은 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답안지 한 장당 6분으로 정해 시간 관리를 했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면 1순위로 조문 의의 및 취지, 2순위로 판례, 3순위로 사안 포섭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간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저는 문제를 풀 때 **시간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기타-

【시간 관리】

저는 공부 시간을 따로 체크하지는 않았고 매일 8시부터 11시까지 독서실에 있는 것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체력/멘탈 관리】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하지는 않았고 점심시간과 저녁 시간에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체력을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공부하면서 심한 슬럼프가 온 기억은 없고 공부를 하다가 너무 집중이 안 되는 날에는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멘탈 관리를 했습니다.

【공부 장소】

월비스 독서실에서 공부했습니다.

【스터디】

성격이 내향적인 편이라 스터디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휴식】

매주 주말에 GS가 있었기에 월요일에 늦잠을 자는 것으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집중이 안 되면 중간에 산책을 하거나 가만히 앉아 있는 식으로 휴식을 취했습니다.

【월비스에서 과목별로 추천하고 싶은 강의/교재가 있다면】

민사소송법 : 이창한 강사님 심화강의

기득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이창한 강사님의 심화강의를 수강하고 민사소송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창한 강사님이 어려운 부분들과 헷갈리는 부분들을 서로 묶어서 설명해 주시기에 심화강의를 통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허법 : 박형준 변리사님 기본강의

동차 때 특허법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된 상태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생각을 완전히 깨준 강의입니다. 기본강의를 들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박형준 변리사님 기본강의를 듣고 특허법을 훨씬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 문제 풀이 실력도 정말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표법 : 한경훈 변리사님 판례강의

한경훈 변리사님 판례강의를 듣고 나서 추상적이기만 하던 상표 개념들이 좀 더 외닿기 시작했습니다. 판례의 태도에 대해 상세하게 나눠서 설명해 주시고 판례의 문구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에 판례강의를 통해 상표에 대해 훨씬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판례강의를 듣고 난 이후 제가 상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보호법 : 김웅 변리사님 실전 GS

김웅 변리사님은 실전 GS에서 강평 이후 시험에 나올만한 논점들과 중요 판례들에 대해 설명해주시는데 실전 GS를 통해 강약 조절 및 전체 내용을 1회독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선택과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꼭 알고 들어가야 할 논점들 위주로 빠르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2차 상표법 과목의 고득점 비결】

1. 논점 추출

상표에서는 다논점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잦다 보니 저는 피날레에 **다논점 문제에 대한 논점 추출 템플릿**을 최대한 많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특정 논점이 나오면 검토해야 할 논점들에 대해 다각적으로 메모해 두고 빠트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2. 사안 포섭 내용과 양

모든 수험생분과 변리사님이 말씀하시듯 저도 상표에서는 사안 포섭이 다른 과목들보다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안 포섭을 할 때 최대한 **논리 구조**를 촘촘하게 보여주고 **문제에서 끌어올 만한 포인트**를 많이 찾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안 포섭을 최대한 많이 하여 **문제를 풀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 높은 이해도

합격을 위해서는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이를 **문제 풀이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상표법뿐만 아니라 어느 과목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험은 암기

만으로 되는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비시즌 동안**에 비단 상표법뿐만 아니라 각 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최대한으로** 끌어 올려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과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받쳐준다면 그에 따라 점수는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강약 조절

제한된 시간 동안 공부를 해서 답안지를 통해 각자의 실력을 보여주는 시험이다 보니 답안지에서뿐만 아니라 공부할 때도 각 논점들에 대한 강약 조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표에서도 **빈출 논점과 그렇지 않은 논점을 구분하여 그와 비례하게 시간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안지를 작성할 때도 문제에서 물어본 논점에 대해 크게 쓰고 부수적인 논점은 짧게 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기출문제와 채점평** 등을 통해 충분한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공부 방법들은 대부분이 강사님들이 수업 시간에 말씀해 주신 방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혼자 공부하다 보니 최대한 강사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방법들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면 모든 강사님이 항상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1차 시험을 안정적인 점수로 통과하지 못했던 터라 2차 시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GS 수업에서 얻는 것은 자신의 위치 파악이 아닌 수업 내용 및 각자의 공부 방법 및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험기간 동안 GS 등수를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를 위해 항상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부모님, 동생, 친구들에게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수험기간 동안 아낌없는 조언과 질문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신 이창한 강사님, 박형준 변리사님, 한경훈 변리사님, 김용 변리사님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진행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한 달에 한 번씩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노유진 변리사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 합격수기가 수험생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hsandho@naver.com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셔도 됩니다. 제가 아는 최대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 내년에 꼭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